

2022년 07월 3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8편 1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69(통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4장 12~21절(구약p.764)

11.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3.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16.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20.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21.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 말씀선포 / 엘리바스의 이상(理想)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계시이며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고 하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성도는 그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다른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이유는 엘리바스는 직접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들려주며 옳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언행은 참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성도는,

1.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영적 경험을 근거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본문 12~16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뽏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그 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엘리바스가 평소에 생각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이 옳은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17~21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뽏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받았다는 계시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옳이 당한 고통이 옳 자신이 지은 죄악의 결과임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옳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라는 신적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경험한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비한 영적 경험 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개개인의 영적 체험은 나를 위한 것이지 너와 우리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며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더욱 알고, 깊이 깨달아 감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사탄의 간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역시 “한 영”의 형상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형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여 자신이 경험한 개인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지금 옳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옳기를 통하여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체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주석가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을 시험해 볼 것을 권했던 악한 존재로서 고난당하는 옳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지금 그의 친구들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이처럼

때로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단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의심 없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선한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행하며 악한 자들의 거짓 주장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이고 온전한 계시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날도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영적 체험은 믿음이 연약한 나를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영적이고, 믿을 만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겸손,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15(통389)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폐 회 / 주기도문